“취업이 먼저”… SKY 최상위, 인문 ‘교육’ 자연 ‘의대’ 선택

SKY 최근 5년 합격선 1위 학과
인문, 교육 관련학과 가장 많아
인기학과인 경영은 5년간 ‘0건’
자연, 의약학 계열 쏠림 뚜렷해
일반학과선 수학·컴퓨터 강세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SKY) 추천 전형의 최근 5년 합격선 1위 학과를 조사한 결과, 인문계열은 교육 관련 학과가, 의약학을 제외한 자연계열은 수학·컴퓨터 관련 학과가 강세를 보였다. 반면 인문계 대표적인 인기 학과인 경영학과는 분석 기간 단 한 차례도 최고 합격선을 기록하지 못했다.

3일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2022~2026학년도 서울대 지역균형전형(학생부종합), 연세대 추천형(교과), 고려대 학교추천전형(교과)의 최종등록자 학생부 성적 70% 컷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인문계열에서는 3개 대학·5개 학년도별 최상위 학과 15건 중 교육 관련 학과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는 2022학년도 영어교육과(1.11등급), 2023학년도 국어교육과(1.04등급), 2024학년도 영어교육과(1.02등급)가 3년 연속 최고 합격선을 기록했다. 연세대는 2022학년도 교육학부가, 고려대는 2023학년도 역사교육과와 2024학년도 교육학과가 각각 상위에 올랐다.

그 외 학과별로는 서울대 경제학부가 2025학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인문계열 최상위에 올랐으며, 2026학년도에는 1.00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인문계 전통적 선호 학과인 경영학과는 단 한 번도 최고 합격선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수능 도입 이후 수학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와 이과생의 인문계열 교차지원, 취업 가능성을 중시하는 실리적 학과 선택 등이 맞물린 결과다.

자연계열은 의약학 계열의 독주가 뚜렷했다. 최고 합격선 15건 중 의대가 13건, 수의대가 1건으로 나타났다.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일반 학과가 자연계열 전체 1위에 오른 사례는 올해 서울대 수학교육과(1.05등급)가 유일했다.

일반 학과 분석에서는 수학·컴퓨터 계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수학 계열에서는 서울대 수학교육과(2023·2026학년도)와 고려대 수학교육과(2022·2023학년도)가 상위권을 형성했다. 컴퓨터 계열은 연세대 컴퓨터과학과가 3년 연속(2022~2024학년도) 1위를 차지했고, 고려대 컴퓨터학과가 2025학년도 최고점을 기록했다. 올해는 연세대 천문우주학과와 고려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과가 각각 비의약학 상위 학과로 이름을 올렸다.

임 대표이사는 자연계 수학·컴퓨터 관련 학과의 강세가 진로 선택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수학 전공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고, 컴퓨터 관련 전공 역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넓어 수험생들이 진로까지 고려해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오는 2028학년도 대입 모집 계획에 따라 SKY 대학의 추천 전형 선발 규모는 확대된다. 서울대는 지역균형전형 모집 인원을 2027학년도 514명에서 2028학년도 728명으로 대폭 증원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인 연세대 추천형은 512명에서 564명으로, 고려대 학교추천전형은 650명에서 672명으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SKY 최근 5년간 합격점수 최고학과 괄호는 등급. 서울대(지역균형)·연세대(추천)·고려대(학교추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인문	자연	자연비메디컬	인문	자연	자연비메디컬	인문	자연	자연비메디컬
2026학년도	경제학부 (1.00)	수학교육과 (1.05)	수학교육과 (1.05)	정치외교학과 (1.20)	의예과 (1.00)	천문우주학과 (1.11)	정치외교학과 (1.23)	의과대학 (1.02)	바이오시스템의과학(1.14)
2025학년도	경제학부 (1.11)	의예과 (1.06)	전기정보공학부 (1.10)	언론홍보영상학부 (1.16)	의예과 (1.01)	화공생명공학부 (1.18)	미디어학부 (1.31)	의과대학 (1.07)	컴퓨터학과 (1.26)
2024학년도	영어교육과 (1.02)	수의예과 (1.06)	항공우주공학과 (1.07)	사회학과 (1.30)	의예과 (1.03)	컴퓨터과학과 (1.31)	교육학과 (1.31)	의과대학 (1.08)	바이오시스템의과학(1.30)
2023학년도	국어교육과 (1.04)	의예과 (1.09)	수학교육과 (1.12)	사회복지학과 (1.28)	의예과 (1.04)	컴퓨터과학과 (1.22)	역사교육과 (1.42)	의과대학 (1.18)	수학교육과 (1.30)
2022학년도	영어교육과 (1.11)	의예과 (1.08)	화학생물공학부 (1.17)	교육학부 (1.21)	의예과 (1.03)	컴퓨터과학과 (1.35)	자유전공학부 (1.54)	의과대학 (1.20)	수학교육과 (1.38)

자료/종로학원

수시 지원자 65%, 유료 입시 상담 받았다

상위권일수록 유료서비스 비중 높아
학생부 상업적 활용 제한 후 불편 늘어
공공상담 ‘예약전쟁’에 실효성 의문

수시모집 지원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유료 입시 서비스나 상담에 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학생부 상업적 활용 제한 이후 입시 준비에 불편을 느꼈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민간 서비스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대입 공공 상담이 수험생 수요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진학사가 공개한 ‘2027학년도 수시 지원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1~18일 수시 지원자 37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3%는 ‘유료 입시 서비스나 상담에 비용을 지출했다’고 답했다. 30만원 이상을 쓴 비율은 25.5%였고, 100만원 이상 지출한 응답자도 3.3%였다. 비용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응답은 34.7%였다. 상위권일수록 지출 규모는 컸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7일 고3 수험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수능 실시요강 등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학생부 상업적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도 확인됐다. 해당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2883명 가운데 57.4%(1655명)는 ‘제도 시행으로 입시 준비가 불편해졌다’고 응답했다. 불편 이유로는 ‘입시 서비스 이용 제한’이 51.3%로 가장 많았고, ‘스스로 합격 가능성과 지원 전략을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24.2%로 뒤를 이었다.

학생부 상업적 활용 제한은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조치로, 학생부를 영리 목적으로 취득하고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입시 정보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공 진로·진학 상담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학생이 필요한 시기에 상담 기회를 얻을 수 있느냐다. 학생부를 직접 검토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요가 몰리면 신청 단계부터 경쟁이 불가피하다. 실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상담 예약이 쉽지 않아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이른바 ‘예약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공공 상담이 민간 서비스의 빈자리를 메우려면 상담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생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수험생들이 필요한 시기에 신뢰할 수 있는 진학 정보를 얻도록 보완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김수정 기자

고1 수학 평균점수 주요교과 중 ‘최하위’

내신 수학 성취도 3년 연속 최저
5등급제 체계에 원점수 관리 중요

고교 내신 평가 체계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 뒤 주요 교과의 평균점수와 상위 성취도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수학은 여전히 다른 과목보다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범위가 넓어진 새 체계에서도 수학의 상대적으로 낮은 성취도가 이어지면서, 과목별 원점수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수능에서도 수학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탐구가 문·이과 공통 응시로 바뀌는 만큼, 학교 내신과 수능을 함께 고려한 학습 전략이 필요해졌다.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토대로 전국 일반고 1679개교의 고1 1학기 성적을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수학 평균점수(평균)는 66.3점으로 주요 5개 교과 중 가장 낮았다. 국어는 71.3점, 사회는 71.2점, 과학은 68.9점, 영어는 67.2점이었다. 수학은 2024학년도에도 63.6점, 2025학년도에는 67.3점으로 최근 3년간 평균이 가장 낮은 과목이었다.

성취도 측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성취도 90% 이상인 A등급 비율은 수학이 2024학년도 17.6%, 2025학년도 21.5%, 2026학년도 20.2%로 3년 연속 주요 교과 중 최저였다.

지난해부터 고교 내신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됐다. 기존에는 상위 4%까지 1등급을 받았지만 새 체계에서는 상위 10%까지 1등급을 받는다. 5등급제 전환 이후 학교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등급 구간이 넓어진 상황에서는 같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원점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과목별 원점수와 성취 수준을 함께 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김수정 기자

교육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강화

학교급·학년별 교육모델 개발·지원

교육부가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틀을 마련하고 수업 자료 제공과 교원 연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3일 발표했다. 미디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학교급과 학년별 교육 모델을 개발해 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네 가지 영역으로 제시했다. ▲접근 및 활용 ▲이해 및 비판 ▲사회 참여 ▲민주적 소통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보면, 초등학생은 미디어를 ‘똑똑하게 이용하고’, 정보를 ‘따져 보며 이용하는’ 데 초점을 둔다. 중학생은 미디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한편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민주적 소통 영역에서는 초등학생에게 함께 생각을 나누고 결정하는 경험을, 중학생에게는 민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방향을 제시했다.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협력하는 ‘찾아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360개 학교에서 내년 5000개 학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원 연수도 늘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연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는 올해 561명에서 내년 1000명으로 확대한다. /김수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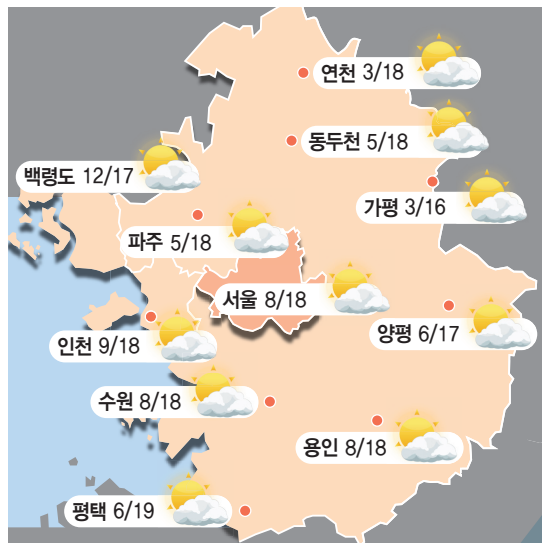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00 | 해짐 / 17:31

11월 4일 (水)
음력 : 9월 25일

수도권 날씨 8 ~ 18℃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美, 이란 케슘섬 공습…혁명수비대는 美 드론 격추 주장 /사진 뉴시스

▲“러 에너지 의존 대가 치렀다”…EU, 美 ‘러 가스 재공급’ 구상에 선 그어

▲美 중간선거 여론조사 민주당 우세…‘샤이 트럼프’·투표율 변수

▲美 중간선거 이후 재정 부담…2028년 대선 공약 재원 시험대

▲트럼프 두 아들이 간접 지분 보유한 텅스텐 개발사, 美 직상장 추진

▲‘주가 45% 급락’ 인텔, 파운드리 시험대…PC 침체·공급망 병목 겹쳐